

새누리 '성완중 악재' 뚫고 정국 주도권

朴대통령 국정 장악력 회복...총리 인선 빨라질 듯

野, 별도 특검·이병기 실장 사퇴 요구 등 힘 빠져

새누리당이 4·29 재보선에서 예상을 갠 완승을 거둬 따라 '성완중 파문'에 주춤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비록 국회의원 의석 4곳의 소규모 선거였지만 대형 악재 속에서도 승리의 척도로 여겨온 2석을 넘는 3석을 수확하면서 박 대통령이 회심의 카드로 내세운 '정치개혁' 약속이 야당의 '정권심판론', '경제실패론'을 극복했다는 논리가 결과적으로 성립할 수 있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별도 특검' 주장과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사퇴 요구 등도 선거 이전보다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게 된

점도 박 대통령에게는 호재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흔들리던 국정 장악력을 상당 부분 회복하면서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명운을 걸고 추진해온 정치·사회 개혁 드라이브에 더욱 강한 추진력을 가질 전망이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 등 '4대 개혁 과제' 완수 작업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이번 성완중 파문의 수습책으로 내놓은 '성완중 특사 특혜' 의혹의 철저한 규명과 정치권의 부패 관행을 '과거부터'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는 이른바 '정치 개혁론'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

관측이 많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후임 인선 작업도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참사와 성완중 사태 등 잇따른 대형 악재 속에 비주류가 주도하는 당쪽으로 힘의 균형추가 점점 옮겨가는 양상이었던 당정 관계 역시 다시 균형을 회복하는 계기로 마련됐다.

병상에서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성완중 정국'을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를 보였던 박 대통령이 시도가 이번 선거를 통해 긍정적 결과로 나타나면서, '이완구 사퇴 파문'에 사과하라는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한 요구도 사그라들 공산이 커졌다.

박 대통령의 '병상 메시지'는 결과적으로 지지층 결집을 일궈냈다는 해석도 가능해 잊혀져가던 박 대통령의 정치력이 새삼 재조명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수세적 국면이었던 '성완중 정국'에서 벗어나 진상규명은 검찰 수사에 맡기고 신적인 국정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 야당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 등 여러 개혁 과제와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등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여야 협상에서도 상대적 우위를 점하면서 주도권을 행사하려 할 것으로 점쳐진다.

김무성 대표는 선거 승리를 확인한 뒤 "집권 여당과 박근혜정부에 힘을 실어줘서 정말 감사하다"면서 "오늘은 선거가 다 끝나고 다시 상생의 정치로 돌아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꼭 성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60석 새누리 '표정관리'

김무성, 당선인들에 "초심 잃지 말라"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새누리당이 '부자 몸조심'을 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에서 3석을 보태 160석의 거대 여당이 됐다. 19대 총선 시작 때 절반을 갓 넘긴 152석으로 시작한 것에 비하면 한결 여유 있는 과반 의석을 확보한 셈이다.

새누리당은 재·보선 승리로 국정 운영에 힘과 탄력을 얻게 됐지만 몸집이 커졌다고 무리하다는 우려를 맞을 수 있다고 판단, 조심스런 행보를 하고 있다.

선거 다음날인 지난 30일 가진 최고위원회의에는 재보선에서 당선된 서울 관악을 오신환 의원, 경기 성남 중원 신상진 의원, 인천 서·강화를 안상수 의원이 나란히 참석했다.

김무성 대표는 당선인들에게 선거운동 소품이었던 빨간색 앞치마와 머릿수건, 고무장갑이 담긴 바구니를 건네면서 "지역 경제와 발전(에 노력하는) '새콤마(새누리+아콤마)' 콘셉트로 일하라고

주는 것"이라며 "민생을 챙기라는 열망을 가슴 속에 새기고 지역 일꾼으로 열심히 뛰겠다는 초심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 대표는 "27년 야당 불패를 갠 오신환 의원의 청혼에 화답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최대 격전지였던 서울 관악을 승리에 의미를 뒀다.

이어 본연의 업무를 게을리하는 없도록 하겠다는 각오가 뒤따랐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선거 결과에 대해 결코 착각하지도 자만하지도 않겠다"며 "4월 국회가 끝나는 대로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이 곧바로 총선 준비에 착수해 국민만 바라보고 국정 개혁과 정책공약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차원에서 당 지도부는 당선인에게 꽃다발을 주는 행사도 생략했다.

한편, 당 지도부는 신임 의원 3명을 주요 상임위에 배정해 이들이 선거운동 때 약속한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호 최고위원이 재보궐 선거 승리를 축하하며 김무성 대표를 업어주자 최고위원들과 지도부가 환호하며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文·安 회동 "원내대표 합의 추대"

문재인·안철수, 당 수습대책 논의

새정치민주연합 새 원내대표의 합의 추대론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추대론은 안철수 전 대표와 문재인 대표의 회동 후 흘러나왔다.

안 전 대표는 지난 30일 문재인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하고 7일로 다가온 원내대표 경선과 관련, 합의추대론을 전격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4·29 재보선 전패로 극심한 후폭풍에 직면한 당 수습책의 일환으로 제안된 것으로, 당내 역학구도 향배의 가능성이 될 원내대표 경선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된다.

두 사람은 2일 오후 2시 본회의 직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당의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재보선 패배 이후 민심과 당심을 어떻게 추스를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은 안 전 대표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안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재보선에서 지고 나서 우리끼리 원내대표 선거를 하면 어떤 국민이 좋아했는가"라며 "원내대표 선거가 당내 통합과 화합의 장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 대표에게 "조속히 당심과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당 대표로서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며 "문 대표가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당내 소모적 갈등이 재연되는 것을 막고 전향위부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차기 원내대표를 합의추대하라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고민해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문 대표측 관계자는 "두 분이 잠깐 만난 건 맞지만, 해석자가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비노(비노무현) 진영의 박기춘 의원의 출마 포기로 인해 최재성 김동철 설훈 조정식 이종걸(기호순) 의원 등 '5파전'으로 확정된 상태이다.

안 전 대표측은 안 전 대표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을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보선 패배로 인해 친노(친노무현) 진영을 대표하는 문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상황에서 당의 화합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비노 진영 후보를 의중을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론조사 득표율 예측보다 '훨씬 큰 격차' 왜?

낮은 투표율·젊은층 무관심에 여론 '착시현상'

새누리당이 4·29 재·보궐선거에서 '수도권 씩씩이'의 이변을 낳은 가운데 당선자와 2위 후보의 득표율 격차도 예상보다 훨씬 컸던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광주 서구을의 경우도 각종 여론조사에 비해 큰 차이로 천정배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이 연출됐다. 이는 광주 서구을을 제외한 투표율이 30%대 중반에 불과한 상황에서 비교적 보수성향의 유권자가 많은 고령층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한데가

새누리당의 효율적인 조직 선거가 주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 서구을은 새정치민주연합에 실망감을 갖고 있던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에는 제대로 응하지 않고, 투표장에서 직접 표로 보여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새정치연합 후보와 탈당파가 맞붙은 광주 서구을에서는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37.9%의 지지율로, 새정치연

합 조영택 후보(36.2%)와 조점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투표함을 열어보니 22.6%포인트(52.4% 대 29.8%)라는 예상 밖의 큰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선거 최대 접전지로 꼽혔던 서울 관악을에서 당선된 오신환 의원과 새정치연합 정태도 후보의 득표율은 각각 43.9%와 34.2%로, 격차가 10%포인트 가까이 났다.

이는 여론조사 전문가 '리얼미터'가 지난 22일 성인남녀 521명을 대상으로 실

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3%포인트)에서 나타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4.8%포인트)의 2배 이상이다.

또 인천 서·강화구의 경우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45.8%)이 새정치연합 신동근 후보(41.7%)를 근소한 격차로 앞지르는 것으로 집계됐으나 실제 득표율 격차는 11.2%포인트(54.1% 대 42.9%)나 벌어졌다.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55.9%)이 20.3%포인트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새정치연합 정환석(35.6%) 후보를 누른 경기 성남 중원도 선거일 전 여론조사에서의 격차는 절반 수준인 11.0%포인트였다. /최권일기자 cki@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햇살론대출
- 임대보증금대출
- 정부정책자금대출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